

종교·복지

교사들 “장애 학생들에게 오히려 배워요”

■ 조선대 야학 ‘빛나리배움터’

지체장애 1급인 김미경(42·광주시 서구 금호동)씨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이 기다려진다. 조선대학교 학생회관 2층에서 운영되는 ‘빛나리배움터 야학’에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해 마련된 조선대 내 ‘빛나리배움터’는 올해로 19년째를 맞는다. 지난 1988년 광천동의 한 교회 유아원 건물 옥상에서 시작해 야학의 이름도 ‘빛(光·광)나리(川·천)’로 지었다.



조선대학교 장애인 야학 ‘빛나리배움터’ 회원들이 교우회의에서 수업내용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중등·고등·한글반 20여명 수학

우역곡절 겪으며 19년째 이어와

장애 학생들 위해 승합차 운영도

다. 김씨는 1차 목표인 고등과정 검정 고시를 통과하면 대학에 진학, 미술을 전공하는 것이 꿈이다. 김씨는 “더 일찍 야학이란 것을 알았다면 공부를 그만큼 일찍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다”며 “선생님들이 열성적으로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공부하는 일이 즐겁다”고 말했다.

년 전 학생 수 감소로 1년 동안은 아예 학교가 문을 닫은 적도 있었다. 2002년 다시 야학을 열면서 장애인들 타기로 잡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 ‘빛나리배움터’ 회원은 모두 21명. 이 중 수업을 하는 사람은 13명이다. 야학에 들어온 첫 해에는 중화원 자격이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교장 문준기(22·생물교육학과 05

학년)씨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늦깎이 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든 생각에 봉사를 하다보면 오히려 배우는 것은 우리들”이라고 말했다.

학생은 중등과 고등과정, 한글반까지 모두 20여명. 비장애인들도 많다. 10대 청소년에서 50대 여성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교사 박성욱(22·화학교육학과 3년)씨는 “학생들 간 편차가 너무 큰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며 “각자의 수준에 모두 맞출 수 없어 힘들기 하지만 그래

서 더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학생들을 받으면서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2인승 승합차를 대 구입했다. 150여명에 달하는 ‘빛나리배움터’ 출신 선배들의 힘이 있다. 한국문예정보진흥원에서 50여만원의 지원을 받은 하지만 운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현 회원들의 몫이어서 차량이나 사무실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학교나 지자체의 도움이 없으면 금상첨화지만 회원들은 스스로 내는 매월 6천원으로 ‘십시일반’하고 있다.

수요일에는 오후 7시부터 밤 10시 1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4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4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을 반복한다. 토요일이 없는 셈이다. 양승현(26·경영학과 4년)씨는 “1년 동안 준회원 자격을 주면서 수업을 시키지 않는 것은 이같은 야학의 힘든 점을 견딜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의도도 깔려있다”며 “장애인들의 뜨거운 향학을 느낄 때면 토요일에 쉬는 일은 사치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종교칼럼



윤빈호

농자천하대본

오늘날 한국농업은 정부에 의하여 대규모화, 단지화, 규격화, 품질화 그리고 판매가 적정화를 추진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고개를 끄덕여 보지만 왠지 석연치 않은 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업이 꼭 공산품 취급을 당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무슨 컴퓨터 칩 혹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과연 그렇게 될까? 한미 FTA 체결을 눈앞에 두고 미국의 규격화된 저가의 농산물이 대거 수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규격화? 왠지 유전자 조작을 통한 규격화 혹은 품질화를 이룬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는 한미 FTA에 신음하는 한국 농촌에 우리 농촌도 고소득을 보장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재배하면 FTA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또한 정부는 119조원이 투자되는 농촌과 농업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농업체질을 강화하고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촌부치를 증진시키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과연 잘 될 것인지?

농사는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라는 뜻의 ‘농자천하대본’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그 의미를 상실한지 오래됐습니다. 정부가 비싼 공산품 팔아서 저가 농산물 사오면 된다는 식의 논리나, 농촌의 고통화를 위하여 노인 복지에만 중점을 두겠다는 논리 그리고 고소득 작물만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논리로 농촌문제를 접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 농업을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첫째, 농촌에 젊은 사람을 수혈하는 일이고 둘째는 농촌과 도시의 직거래를 통해 우리 농산물을 우선 소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에는 인색하면서 신도시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 정부를 꼭계만 볼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 농민회는 ‘피살이 운동’을 통하여 방상살림, 농업살림,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 생활공동체 실현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손잡고 우리 농업과 우리 농촌을 살리려는 생활실천입니다. 지난 10월 제가 사는 곡성에서는 가톨릭농민회와 곡성군이 함께 도농 연대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감탄하신 이 땅, 이 땅에서 피와 땀으로 농사를 하는 농부들이 사회의 근본이 되고 그 피와 땀을 먹고 자란 우리 먹거리로 우리 건강이 책임져지는 그런 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농민들께 ‘힘내세요!’라고 외쳐 봅니다.

(곡성성당 주임 신부)

성지 도보순례자 모집 광주시 기독교단협 정총천주교 광주대교구

천주교 광주대교구(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2007년 대학생·청년 성지 도보순례’ 참가자를 모집한다.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3박4일 동안 진행될 대학생과 청년 등 5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총 4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구간 해남-다산초당-강진 ▲2구간 강진-영암-목포 산정동 ▲3구간 목포-몽탄(이내수 신부 묘역)-나주(무학당)-노안 ▲4구간 노안-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참가비는 4만원이며, 구간에 따라 1박2일(2만원)만 참가할 수도 있다. 문의 062-380-2273

광주광역시 기독교단협의회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운남중앙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맹인환(66·운남중앙교회·사진) 목사를 선출했다.

상임부회장에는 강상원 목사와 양봉화 장로가, 총무에는 윤세관 목사가, 서기에는 조우영 목사가 각각 뽑혔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지역 각 기독교교단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빛고을 불교 아카데미 강연 내용 ‘위대한 버림’ 책으로 묶여 나왔다

지난 2005년부터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의 강연 내용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위대한 버림’(백간주체통)의 토대가 된 강연 주제는 지난해 진행했던 ‘인간 보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 부처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팔상성도(八相成道)에 따라 8명의 고승들이 법문을 펼친 것이다.



藍降生相)은 월운(전 동국역경원 원장) 스님이, 사문에 나가 세상을 보는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은 지산(고봉총림 백암 사유니) 스님이, 성을 넘어 출가하는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은 지광(서울 능인선원 주지) 스님이, 설산에서 수도하는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은 수진(부산 해인선원 주지) 스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마귀의 항복을 받는 수하량마상(樹下降魔相)은 통광(쌍계사 강원



지산해 ‘팔상성도’를 주제로 8주 동안 열렸던 빛고을아카데미의 강연 장면.

(빛고을아카데미 제공)

강주) 스님이, 녹야원에서 첫 설교를 하는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이 성열(서울 강남포교원 원장) 스님이,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는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은 원담(서울 조계사 주지) 스님이 각각 법문을 펼쳤다. 한편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지난 2005년

광주 지역 불자들이 대중을 위한 불교 강좌를 기획하면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당시 ‘부처님 10대 제자와의 만남’을 주제로 10명의 스님이 강연에 나서면서 불자 아닌 시민들에게도 호응을 얻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Daewoo, A+, and others,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with prices and features.